

“대양산단 분양·해상케이블카 건설...지역경제 대도약 이끌 것”

민선 6기 하반기 새 설계 박 홍 룰 목포시장

“지역 최대 현안인 대양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의 50% 달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유달산~고하도간 해상케이블카를 차질 없이 완공해 목포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박홍룰 목포시장은 최근 ‘민선 6기 하반기 설계’를 주제로 한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동안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관광 명품도시로 기틀을 다져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민선 6기 2년간의 전반기는 한마디로 목포시가 더 큰 위기가 되지 않도록 몸을 추스르는 속려 기간이었다면, 하반기는 본격적인 성과물이 나타나고 시민의 일상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행정의 손익분기점이 시민 여러분의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고, 거시적 안목으로 해양관광중심도시 목포 미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해상 모노레일·레일바이크 조성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 기틀 마련

기업 유치·재정 건전화 총력전

박 시장은 하반기 최우선 추진 과제로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도시 건설’을 꼽았다.

박 시장은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현재 노선 등에 대한 각종 기초조사를 마무리했으며, 민간사업자가 사업추진을 위한 법인설립과 동시에 협약이행보증금(15억원)도 납부했다”며 “앞으로 환경, 교통, 사전재해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 후 올해 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마무리하고 2017년 초에 공사를 착공해 이르면 내년 연말에 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고하도는 지난 2008년에 수립된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민간사업자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변경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해변을 따라 약 4km 정도



의 해상 모노레일 또는 레일바이크를 민자 유치로 추진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

주요 역점사업은

- ▲체류형 관광도시 건설
- ▲고하도 유원지 조성
- ▲대양산단 분양률 50% 이상 달성
- ▲재정건전화로 지방 부채 조기 상환
- ▲소통하는 열린 시장 강화

공하겠다”며 개발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시장은 “목포시에 가장 부족한 리조트와 같은 가족단위 대형 숙박시설을 고하도에 민자 유치로 추진하고자 현재 관련 업체를 방문해 투자여향을 타진 중”이라며 “앞으로 민간사업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달내로 전국 공모를 통해 평가 후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하반기 두 번째 역점 과제로 ‘기업유치’를 들었다.

그는 “목포는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 상해와 국내 최단거리인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KTX, 목포 신항 등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이 구축돼 있다”며 “산업인력 공급이 용이하고, 주거·교육·쇼핑 등 정주여건도 우수해 대양산단의 장점을 널리 알린다면 50% 분양률 달성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매진했던 재정건전화

를 위한 노력도 힘없이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민선 6기 출범 직후 3010억원이었던 부채는 2년 동안 544억원 상환해 현재는 2466억원으로 줄어 들었다”며 “앞으로도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지방채 상환지급을 적립하는 등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장운영의 기본 철학인 ‘소통’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박 시장은 “민선 6기 제1 시장방침인 ‘소통하는 열린 시장’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한 결과, ‘톡톡(Talk Talk) 튀는 현장 투어’가 시민들 사이에서 ‘감동 행정’으로 인식되면서 하루하루가 소중했다”면서 “당장 눈앞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10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가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목포의 눈물 노래비’ 목포시 문화유산 지정된다

市 심의위원회 통과

이난영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달 다양한 기념행사가 펼쳐진 가운데 ‘목포의 눈물’이 발표된 지 81년 만에 ‘목포의 눈물 노래비’(사진)가 목포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목포시 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원 12명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목포의 눈물 노래비’ 목포시 문화유산 지정 안건이 통과됐다.



목포의 눈물 노래비는 이난영이 세상을 떠난 지 4년 뒤인 1969년 당시 목포에서 목포악기점을 운영하던 박오주 씨가 유달산 기슭에 세워 기증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 노래비라는 상징성과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또 이 노래비에는 1935년 당시 발표됐던 노랫말과 현존하는 노랫말이 함께 표기돼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목포의 눈물’은 지난 1935년 1월 오케 레코드에서 ‘조선 10대 도시 찬가’가사를 공모한 결과, 평양과 부산 그리고 목포 노래가 당선되면서 탄생했다.

이 노래는 목포 출신 문인 문일석(본명 윤재희)이 지은 시에 손목인이 곡을 붙인 것으로, 당시 데뷔 3년 차였던 그저 그런 이난영이 불러 일약 스타가 됐다. 당시 이 음반은 무려 5만 장이나 팔려

나가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차연희 목포시 교육문화 사업단장은 “‘목포의 눈물’은 국내 대중가요 평론가들로부터 ‘고도의 상징을 통해서 민족의 실존(1~2절)을 표현하고 조국에 대한 절개(3절)를 맹세한 작품’으로 평가 받는, 문화적 가치가 높은 귀중한 대중가요의 문화적 콘텐츠”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수년 전부터 ‘목포의 눈물’을 목포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왔지만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전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등에 나열된 항목에 의하면 대중가요는 무형문화재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무형문화재 지정 시 반드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일본서 펼친 목포항 세일즈행정 성과 크레인 6기 목포신항만서 제작기로

목포시가 일본에서 목포항에 대한 세일즈행정을 펼쳤다.

목포시는 3일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물동량 유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신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 일원에서 목포항 포트세일즈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포트세일즈는 목포시, 목포신항만운영(주)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한신 국제항만 주식회사, 미쯔이 조선, (주)카미구미 등을 방문해 크레인 영업 수주 및 항만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다.

포트 세일즈 결과, 일본 미쯔이 조선, (주)카미구미사가 올해 하반기 목포신항만 야적장에서 베트남 행 컨테이너 크레인 2기를 추가 제작하기로 했고, 내년 상·하반기 미국 LA항행, 오사카항행 컨테이



너 크레인 총 6기를 목포신항만에서 제작하기로 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문옥 추진단장(목포시 관광경제수산국장)은 “국내·외 포트세일즈를 확대하고 목포항 이용 선·화주, 물류기업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목포항과 오사카항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및 플랜트 화물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의회 하반기 의장에 조성호 의원

제10대 목포시의회 하반기 의장을 이끌어갈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 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하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를 진행해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조성호(사진) 의원을 의장으로, 성해리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

다.

후반기 목포시의회를 이끌어 갈 조 의장은 국민의 당 출신 3선 의원으로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했다. 또 성 부의장은 3선 여성의원으로서 최초 여성 부의장이라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조성호 신임 의장은 “시민이 시의회에 위임한 견제와 감시를 적극 이행하는 ‘강한 의회’와 의회 내



부뿐만 아니라 외부와도 ‘소통하는 의회’를 정립하고,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민생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4일 소회의실에서 제10대 후반기의회 출범식을 갖고 향후 2년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제328회 정례회는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22일 간의 회기가 진행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매매

새 주인을 찾습니다

아름다운 펜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벚꽃, 소나무, 단풍나무, 황금공작편백,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4,745평), 단층 슬라브 350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C 15분 / 문평.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합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